

「마음 열고 | 찬양과 나눔」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찬송 384장, 구 434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2006년 10월, 평화롭던 ami쉬 마을 학교에 한 괴한이 침입해 충기를 난사했습니다. 범인은 아무 원한도 없는 소녀 5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곧장 범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범인의 아내와 아이들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역시 우리처럼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마음 다해 | 말씀과 나눔」

1.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1-8절).

- 1) 요셉이 정체를 드러낸 순간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3절)
- 2) 요셉은 누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고백합니까? (5, 7-8절)

나눔 1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밉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아픈 일조차 나를 훈련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돕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 요셉은 형제들의 가족을 초청합니다(9-15절).

- 1) 요셉은 가족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11절)
- 2) 요셉은 자신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형들에게 무슨 말을 덧붙입니까?(12절)

3) 형들이 비로소 요셉과 대화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15절)

나눔 2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흥년 동안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의 형편을 살피거나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까?

나눔 3 두려움에 떨던 형들은 요셉이 먼저 다가갔을 때 비로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해나 갈등으로 오랜 기간 침묵하던 관계가 누군가 먼저 건넌 사과나 진심 어린 행동으로 풀린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 마음 모아 | 함께 기도 」

삶 _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소서.

공동체 _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 나의 갈길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 니 내주 안에있는 공홀어찌 의심하리
2. 나의 갈길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 니 어려운일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
3. 나의 갈길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 니 그의 사랑어찌 큰지말로 할수없도

요 믿음 으 로사는 자는 하늘 위 로받겠 네 무슨 일 을 만나 든 지
네 나는 심 히고 단 하고 영혼 매 우갈하 나 나의 앞 에반석 에서
다 성령 감 화받은 영 혼하 늘 나 라갈 때 에 영영 부 를나의 찬 송

만사 형통하리 라 무슨 일 을 만나 든 지 만사 형통하리 라
샘물 나게하시 네 나의 앞 에반석 에서 샘물 나게하시 네
예수 인도하셨 네 영영 부 를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네 아 멘